

통신3사, 3만원대 5G요금제 격돌

SKT “데이터량 최다” KT “청년 2배” LGU+ “OTT할인”

4~6GB 데이터, 3.7만~3.9만 구성
청년·온라인 요금제로 혜택 제공
우주패스·디즈니+ 등 부가서비스
격차 줄었지만 아직 알뜰폰 더 저렴

#. 30대 직장인 A씨는 알뜰요금제를 쓰고 있다. 평소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해 데이터 사용을 적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최근 통신3사에서 5G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알아봤지만 알뜰폰이 더 저렴해 갈아타지 않기로 했다.

최근 통신 3사가 3만원대 요금을 출시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이월기능, 연령대별 특화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등 혜택 구성도 세분화됐다. 다만, 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통신사별로 데이터 제공량이 다르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할인 혜택이 상이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SKT 요금제 비싸지만, 데이터량 많아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3사는 최근 5G 데이터 저가구간의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했다.

SK텔레콤은 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와,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컴팩트플러스’ 등 요



지난해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금제를 내놨다.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각각 월 2만9210원, 3만3725원이다. 같은날 LG유플러스도 월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 (월 3만7000원) 요금제를 선보였다. KT도 앞서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5G슬림 4GB’ (월 3만7000원) 요금제를 공개했다. 1GB당 요금을 비교해 보면 3만원대 구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저렴하다. SK텔레콤이 6500원, LG유플러스 7400원, KT 9250원 순으로 낮았다.

이에 더해 이동 3사 모두 기존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렸다. SK텔레콤은 베이직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8GB에서 11GB로, 슬림 (월 5만5000원) 요금제 제공량을 11GB에서 15GB로 늘

린다. LG유플러스도 ‘5G 슬림+’ (월 4만7000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6GB에서 9GB로 상향 조정했다. 월 5만5000원의 ‘5G 라이트+’는 12GB에서 14GB로 늘렸다.

KT는 기존 기존 4만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5GB에서 7GB로 늘리고 월 5만5000원·10GB 데이터를 14GB로 확대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는 데이터를 2배 많이 제공한다.

◆청년 및 온라인 혜택 확대

SK텔레콤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0청년 3’ 요금제를 신설했다. 그러면 월 4만3000원의 0청년 43의 제공 데이터를 6GB에서 8GB로, 월 4만9000원

의 0청년 49 데이터 제공량도 12GB에서 15GB로 늘렸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다이렉트 5G 27’ (월 2만7000원, 6GB)과 ‘다이렉트 5G 31’ (월 3만1000원, 8GB) 등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단말기 구입 없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유심(USIM)만 구입했을 때 가입 가능하다. 특히 업계 최초 2만 원대 온라인 요금제인 ‘다이렉트 5G 27’은 3만 원대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30%가량 저렴하다.

KT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요고’는 최저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총 13종에 달할 만큼 세분화됐다. 저가 구간은 월 3만원대 데이터 5GB, 월 3만2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5G 다이렉트 30’은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소진 시 최대 400kbps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OTT 등 부가혜택 ↑… 5G는 알뜰요금 ‘저렴’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과 우주패스 구독 혜택을 더한 ‘5GX 프리미엄 (월 10만9000원)’ 요금제도 신설했다. ‘5GX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세븐일레븐 및 투썸플레이스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우주패스 라이프’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정가가 월 1만4900원인데, 사실상 무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월 9900원의 디즈니 플러스(+) 할인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일부 고가 요금제에서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전 요금제에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데이터 제공량도 2배 늘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만 24개월 미만 육아가구 대상으로 데이터 5GB 쿠폰을 제공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1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상 연령도 생후 36개월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해로 확대해 총 4년간 제공한다.

이처럼 통신 3사의 3만원 대 요금제가 쏟아지면서 알뜰폰과 요금제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의 5G 요금의 경우 6GB에 1만원대로 현재까지 조금 더 저렴하다. 다만, 이동사 5G 요금제의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할인받거나 청년 대상으로는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다. 또 커피, 영화, 로밍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여의도서 2300여명 규모 전시 개최

초대형 팝업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
대표 캐릭터로 문체부장관상 수상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선보

LG유플러스는 4월 14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대표 캐릭터 무너를 소개하는 초대형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너는 당당한 MZ세대 사회초년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초년생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무너 캐릭터

를 활용해 매년 400여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팝업 전시를 선보였다.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무너와 함께 더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여의도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 약 2300여명 규모의 전시를 열었다.

먼저 유람선은 무너 캐릭터로 꾸려진 무너호로 탈바꿈했다. 무너 인형을 뽑는 뽑기게임, 무너를 자유롭게 그리며 아트월을 꾸미는 사생대회, 아트월에 숨은 벚꽃 무너를 찾아내는 보물찾기, 무너 캐릭터가 적용된 즉석 사진부스 무너 네컷 등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매일 소소한 미션을 달성한 이용자 선착순 50명에게 무너 캐릭터 피크닉 의

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해 무너 조형물 4개가 동원된 초대형 포토존 등 다채로운 포토존은 물론, 무너 캐릭터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 라면, 치맥 등을 즐길 수 있는 쉼터도 구성했다.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도 운영한다. 무너 굿즈는 인형, 피규어, 양말, 에코백 등 50여종이다. U+멤버십 인증 시 10% 할인해 주며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 회원 인증 시 무너 캐릭터 엽서를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회사는 이번 팝업 전시에서 새롭게



LG유플러스 모델이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U+

선보인 무너카카오톡 이모티콘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한정판 이모티콘 굿즈 5종도 공개한다. 이모티콘 구매 후 인증하면 무너 네컷 촬영권을 제공한다.

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무너가 올해 여

의도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벚꽃 풍경뿐 아니라, 무너와 함께 봄 소풍을 즐기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인포뱅크, AI 역량강화 위한 신입 사내·외 이사 선임

홍승표·홍종철 사업부 대표
강진범 (주)아이냅스 CTO 선임

인포뱅크(주)(대표 박태형)가 지난 28일 성남시 분당구 인포뱅크 사옥에서 제 2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입 사내이사과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중에서는 ▲ 2023년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 ▲ 사내·사외이사 선임 ▲ 감사 선임 ▲ 이사 보

수한도 승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사내이사로 인포뱅크 홍승표 아이컴(iComm) 사업부대표, 홍종철 아이엑셀(iAccel) 사업부 대표, 사외이사에는 강진범 (주)아이냅스 CTO가 선임됐으며, 이성구 인포뱅크 감사가 재선임됐다.

인포뱅크는 이번 신입 이사진 선임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과 시스템 구축 역량을 확보해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AIaaS, A

I as a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투자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홍승표 아이컴 대표는 고객사 만족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한 B2B 메시징 업계 전문가다.

홍종철 아이엑셀 대표는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액셀러레이터다.

강진범 사외이사는 데이터 및 AI 분야 전문가다.

/김서현 기자 seoh@

대한전기협회, 아파트 정전사고 안전교육

현장 대처능력 향상 도움 기대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주택(아파트)의 정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전기협회는 4월 23일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대한전기협회 실증연구센터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공동주택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소개 ▲공동주택 정전현황 및 노후 변압기 고장원인 분석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소개 ▲공동주택 점검, 고장사례 및 예방대책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고장사례와 분석 내용을 소개하는 등 정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ysw@